

‘수포자’ 제로...초등 저학년 수리력 돕는다

광주시교육청, 학습자료 개발 기초학력 전담교사 노하우 담아 놀이·게임방식 연산학습 지원



‘수포자(수학포기자) 없는 학교’를 위해 주요 교육정책으로 내세운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학습자료 ‘수리력 첫걸음’을 개발해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24일 수학·과학 등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수리력 함양 방안의 하나로 수리력 첫걸음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뇌과학에 근거한 수학 학습이론과 광주 동·서부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전담 교사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까지 수세기와 연산 등을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학

생용 자료로 개발했다.

교사의 지도·아래 개념을 익히고 스스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주제마다 ‘생각해요, 함께해요, 스스로 해요’ 등 3가지 활동으로 구성했다.

‘생각해요’에서는 개념을 배우고, ‘함께해요’에서는 교사의 설명과 시범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스로 해요’는 놀이 또는 게임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재미있게 반복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습자료를 통해 수감각이 부족해 수세기를 어려워하고 덧셈과 뺄셈을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학생들의 수리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들도 학습자료를 많이 활용하도록 지난 4일

에는 기초학력 컨설팅위원을 대상으로, 12일에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과 연수를 했다.

자료 개발에 참여한 성장근 기초학력 전담 교사는 “다양한 활동으로 수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단순 기계적인 연산이 아닌 수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수업 아카이브 ‘다모다’ 사이트에도 학습자료를 탑재하고, 광주교육대학교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연계해 초등학교 중학년 수리력 자료 개발과 수리력 지도 전문성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학을 쉽고 즐겁게 배우야 탄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국제보건 리더십 프로그램’

조선대 간호학과 ‘국제보건 리더십’ 참여

필리핀서 6박7일 국제보건 역량·간호 리더십 향상 활동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간호학과(학과장 김현례) 학생들이 국제보건 역량과 간호 리더십 향상을 위한 ‘필리핀 국제보건 리더십 프로그램(Global Health for Sustainable Future in Philippines)’에 참여했다.

조선대 간호학과 학생 8명과 호남대 간호학과 학생 10명, 지도교수 및 퍼실리테이터, 현지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연수팀은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6박 7일 동안 필리핀 마닐라와 보라카이 원주민 마을인 Ati Village에서 보건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 및 문화활동을 통해 국제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리더십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지난 1월 6일과 23일에 국내 사전교육과 조별 모임을 통해 국제보건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필리핀의 SDGs 이행수준(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을 중심으로), 필리핀의 건강수준 및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사전학습과 더불어 지역의 아동, 청소년, 성인의 보건교육 활동, SDGs 교육 및 문화교류를 위한 준비를 했다.

연수팀은 마닐라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필리핀 지부를 방문해 각 기구의 기능과 역할, 국제보

건의 건강 문제 이슈, 세계보건기구에서의 활동 경험 및 필리핀 무상원조 사업 등에 대해 강의를 듣고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간호사의 역할을 인식하고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한 보라카이의 일 초등학교를 방문해 신체계측 및 시력검사, 색맹검사, 손위생 및 구강교육 등 보건교육을 했으며, 보라카이 원주민 마을인 Ati Village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당기예 예방, 손위생, 구강보건 교육과, 친환경 화장실 청소 세제 만들기, reflection 키링 만들기, 간이 정수기 실험 등의 SDGs 교육, 전통과자와 함께 하는 윷놀이, 딱지 접기와 놀이, 가위바위보 꼬리잡기 등의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이 마을은 관광지 개발로 인해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생계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마을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들의 건강에 다양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었다.

김진선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국제보건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 및 세계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조경아 교수 연구팀 노화 대사질환 개선 효과 규명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조경아 교수 연구팀이 TLR5 (Toll-like Receptor 5)의 간 기능 조절 역할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Aging Cell’ (Impact Factor 8.0, 노화 분야(Q1) 상위 10% 이내 저널)에 최근 온라인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경아 교수 연구팀은 앞서 TLR5 활성화가 뇌 대사 기능 향상, 만성 염증 억제, 수명 연장 및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기여함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TLR5의 간 대사 조절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사질환 및 간 섬유화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TLR5는 세균 편모의 단백질인 플라젤린(flagellin)을 인식하는 선천면역 수용체로, 면역 반응뿐만 아니라 대사 및 조직 재생을 조절하는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TLR5 결핍 마우스(TLR5 KO) 모델을 이용해 연령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체중 증가, 지방간 악화, 대사 이상이 가속화됨을 확인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TLR5가 지방의 흡수·분해·생합성·저장, 일주기 리듬, 세포 노화 관련 유전자 조절에 관여함을 밝혀냈다.

조경아 교수는 “TLR5는 간 기능과 대사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대사질환 치료의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면역 기능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강화한다면 건강한 노화와 장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21일 나주 '3917마중'에서 시범학교로 재선정된 기관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전남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6개원 운영

운영 계획·회계 처리 기준 안내·발전 방향 공유 등 설명회 개최

전남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영유아 시범학교 6개원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운영 성과와 올해 운영 계획을 평가해 6곳 모두를 시범학교로 재선정했다.

도 교육청은 앞서 지난 21일 시범학교로 재선정된 기관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계획과 회계 처리 기준을 안내하고, 시범사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각 시범기관이 지난해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시범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도 교육청은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이 이상적으

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단 ▲컨설팅 지원단 ▲원장협의체 ▲아이행복 교사학습공동체 ▲시범학교 공개의 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남 전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시범학교는 각 기관의 특성과 전남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바람직한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에도 시범기관이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광주여대,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21명 배출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교직과정센터는 2025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다수의 합격자가 배출되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여대가 지난 20일까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양성 단위별 교육과에서는 초등특수교육과에서 15명, 중등특수교육과 4명이 합격했다. 교직과정에서는 간호학과(보건교사) 2명으로 총 21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교원 임용 명문대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광주여대 교직과정센터 한민석 센터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양성규모의 적정화로 인한 선발 인원 감소로, 매년 교원 임용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낸 것은 미래교원 양

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노력과 훌륭한 교수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교원 임용률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며, 관련 분야 취업률까지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여대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양성 단위별(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모두 최우수 교원양성기관 A등급을 받은 전국 대학 중 유일한 교원양성 명문대학이며, 특히 높은 재학생 만족도와 교원임용률 및 관련분야 취업률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입니다.